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40호(98/4/17)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잠깐만! 불심검문  
법대로 하고 있나요?



# 불심검문 제대로 알기!



내가 그렇게 수상해?



불심검문은 행인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



신분증 보여줘야 돼 말아야돼?

경찰은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자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4항)



가방까지 보여줘야돼?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를 조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외부로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검사 (stop and frisk)로 알아보되 의심스러운 경우 가방 등을 열어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3항)

## 불심검문 - 의심스러운 경우 행하는 검문



나 이리다 끌려  
가는거 아니야?



불심검문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에 정한 절차를 지켜서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찰관의 행위에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구.

불심검문은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경찰관집무집행법도 몰라요! 불심검문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며...

나의 당연한  
권리찾기!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한명한명의 당연한 행동이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막올라

경찰의 불법에 맞선 권리 찾기 위한 불복중운동

지난 7일 '불심검문 불복중운동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15일 2시 대학로, 17일 12시 명동성당에서 불심검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 18일 종묘공원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이란 캠페인 명칭이 나타내주듯이 법마저 무시하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평화적인 '자기 권리 찾기 운동'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교대, 숭실대 등의 총학생회 및 각 대학 자치단위가 결합하는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캠페인은 앞으로 대학 사회에서 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총학생회는 3월 20일에 있었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받아 4월 16일 서울지법에 관악경찰서장을 형사고발하였고, 4월말 안으로 5명의 피해자를 대표 고소인으로 하여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영남대 법대학생회에서도 한 총련 대의원대회를 막으려는 경찰의 불법 검문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 사회에서 불심검문 캠페인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사랑방은 4월 중으로 사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사회단체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오는 5월 12일경에는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를 갖고 불심검문의 불법성을 사회 여론화할 계획입니다.

불심검문 팀은 전화카드 크기의 불심검문 경고 카드와 8쪽 짜리 팸플릿을 제작해 캠페인 때와 각 대학 등에 원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심검문 팀은 자원봉사자 모임 대표 이영태 씨가 실무 책임을 맡고, 대학생인권모임이 적극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심검문 피해사례를 수집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741-2407을 전화로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3일 사랑방과 대학생들의 불심검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친절 불심검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비상황 대비시 불심검문 관련교양 철저 지시'라는 공문을 보내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난 7일 불심검문의 불법성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검문검색에 대한 저항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친절한 검문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친절 검문요령'도 시달렸는데, 이에 따르면 검문경찰관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이 명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문중입니다' 등 검문 목적을 밝힌 뒤 간단명료하게 검문을 끝내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움직임에 따라 느슨하게 잡았던 일정을 재고, 추진 속도를 한층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

# 사 / 업 / 보 / 고

(98년 3월 셋째주부터 4월 둘째주까지)

\*\*\*\*\*

## 자료수집과 교재 발간 등 추진

### 국가보안법 사업 5월부터 추진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업에 대해서 98-99년 간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한 원래의 방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민변, 민가협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도 계속 일정상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어 이제 각 단체별로 준비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공유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 인권정보자료실, 인권교육이라는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6가지 사업을 사랑방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수집; 90년대 이후 제7조 위반사건과 관련된 피해 사례에 한정해 조사하고 수집된 사례를 책이나 자료집으로 발간함.

② 자료조사와 Internet 사이트 운영; 98년 여름 쯤 개설 예정. 소식, 자료, 교육, 논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자료에 관해서는 국가보안법 사이버 자료실을 운영함.

③ 대중적인 책자 발간; 국가보안법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계몽적 책자를 참신하고도 알기 쉽게 제작.

④ 국가보안법 캠페인 소식지(국내용) 2년간 발간: 월간이나 격주간 A4 8쪽 분량으로 한국과 외국에서의 캠페인을 소개.

⑤ 국가보안법 교육: 교육전담자를 양성하여 약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순회

교육한다. 대학 학생회와 동아리, 사회단체, 시민단체,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함.

⑥ 국가보안법을 개관하는 Video 제작: 30분 정도 분량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

위 사업 중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할 사업에 대한 결정과 함께 만약 이 사업에 대한 공동 사무국의 구성 등이 가능할 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①③⑤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수경 씨가 실무 책임을 맡고 기본기획을 4월 중으로 마련, 자료조사팀과 교재연구팀 등 두 팀을 자원봉사자와 직장인 인권모임인 '틈새' 등으로 구성하여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국가보안법 사업이 내용도 방대하고, 오랫동안 지속해야 할 사업이며, 재정도 꽤나 들어가는 사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될 때 이 사업은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4월말까지 설문지 2백부 수거 목표

### 교도소 인권실태 조사 사업

교도소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5일 1차 마감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앞에서 배포한 설문지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4월 들어서는 긴급히 대책을 마련, 각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출소자 기관들을 방문하여 부탁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한겨레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월말까지 2백부의 설문지를 수거하겠다는 의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백부만 수거되더라도 지금까지 교도소 실태 조사 작업한 것 중에는 가장 많은 양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재소자들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여 인권협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외부로 알려지자 언론사들은 매우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보고서가 언제 나오는가를 물어오고 상황입니다.

한편,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문서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윤치고 씨 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은 현재 경북 의성지청으로 넘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사랑방은 일반 교도소내의 인권실태 문제와 더불어 청송보호감호소의 문제도 제기하려는 계획을 갖고 15일에는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와 임영화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내부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 정말 놀랄 일! 사무실 확장

사무실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

3월 21일, 23일의 봄맞이 대청소를 계기로 사무실 구조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사무실 구조를 과감히 헐고, 업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책상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김동한 운영위원님의 책을 빼낸 자리를 활용해 자료실과 회의실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깔끔한 구조를 얻게 되어 대체로 만족스럽다, 보기도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늘어나는 자원봉사자들과 방문객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침 현재 사무실의 5층이 매우 싼 값에 나와 20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5층은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 두칸과 옥상을 개조하여 만든 가건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층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 5층을 자료실과 대표 집무실 또는

교육 및 회의실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5층까지 확보하면 지금처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함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원봉사자 두드러진 활약

각종 사업마다 주동적 결합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2주마다 모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업무를 점검하고,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식지 준비호를 매번 모임에 맞춰 발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사업과 업무에 결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현재 인권하루소식 등의 일상업무에도 결합하고 있고, 불심검문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폭은 점차 높아져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교도소 인권실태 조사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 중 1월부터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활동했던 이상준 씨가 청년인권운동 단위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갖고 빠져 나갔고, 반면에 성동철(건대 중퇴) 씨가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이주영 씨가 3월 중순부터 자원봉사자로 나와 인권하루소식의 기획 사업을 위한 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 서울교대, 숭실대, 성공회대 등의 인권동아리들이 모인 대학생인권모임도 매주 수요일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 사회 내에서 인권논의를 전파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지난해까지 활동한 인권운동대학생연대가 사실상 활동을 중지한 이후 새롭게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되는 불심검문 관

런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헌장선언대회 한달 앞으로  
광주 아시아인권헌장선언 대회 한달 앞으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는 아  
시아인권헌장선언대회가 열립니다. 광주 5.18  
정신을 승화하여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거듭  
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번 대회를 유치한  
광주시민연대모임(공동의장 윤장현 등)은 두  
차례에 걸쳐 상경하여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인권단체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민연대모임에 따르면, 대회 일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14일(목) 오후 6시, 개막식

· 15일(금) 오전 Session I: 아시아인권헌  
실의 재확인/ 오후 Session II: 아시아에서  
의 여성의 권리를 향한 도전

· 16일(토) 오전 Session I: 경제 사회 그  
리고 문화적 권리와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오후 Session II: 국가가 보증하는  
인권헌장, 아시아지역 인권재판소, 지역인권  
위원회, 그리고 난민에 대한 지역 기구의 필  
요성

· 17일(일) 오전 Session I: 5.18 망월묘역  
등 성지순례, 국립광주박물관 견학/오후  
Session II: 특별초청강연-벨로 주교(동티모  
르,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미정), 아시아  
인권센타의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 폐막식  
및 5.18 전야제 참가

이번에 광주에서 선포되는 아시아인권헌장  
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  
으로 약 4년동안 홍콩에 있는 아시아인권위  
원회가 주도하여 150여개 아시아지역 민간단  
체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  
시아인권헌장 영문본은 팩스로, 한글 번역본  
은 컴퓨터 통신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필  
요하신 분은 사무국장에게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인권협, 재소자인권, 철거폭력 대응기로

인권협은 4월 16일 오후 7시 덕수합동법률  
사무실(동대문 새 사무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각 단체 밀린  
회비 납부를 독촉했습니다(참고로 사랑방은  
97년 2월까지만 회비를 납부한 상태임). 또  
한,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대표단체와  
간사단체에 대해서는 민가협과 천주교인권위  
원회에서 결정이 미뤄져 5월부터나 새로운  
집행단위로 인권협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  
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네바에서 열린 54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보고를 지은경 민변 간  
사가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말부터 계속 발생하는 재  
소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랑방과 천주교인  
권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한 이후 공동대처하  
기로 하였습니다. 또, 최근의 도원동 사태에  
서 보여지듯이 철거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  
에서 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대응하  
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대응도  
할 수 있지만, 정부 상층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하는 방향의 사  
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국  
민인권기구에 대해 서둘러서 인권협의 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있는  
단체의 활동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내부 위  
크샵을 거친 후 공개 토론회,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대표, 4월혁명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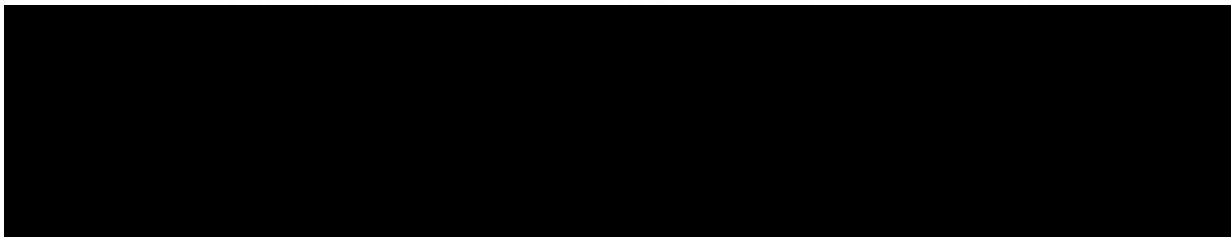
4월혁명연구소(소장 조영건)는 17일 종로성  
당에서 제9회 4월혁명상 수상식을 갖고, 서  
대표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  
난 해부터 서대표는 KNCC 인권상, 씨네 21  
영화상 대상에 이어 세번째 상을 수상했습니  
다.

**98년 3월 재정보고**  
(98년 3월 16일 - 4월 15일)

전기이월: -1,421,717원

수 입		지 출	
회비	2,477,700	활동비	3,770,000
구독료	2,817,700	발송비	474,790
사업수익	792,890	사무비품비	26,500
후원금	3,020,677	사무실유지비	689,160
은행이자	13,573	간행물구독료및자료구입	335,930
기타	200,000	식대및 부식비	422,000
		통신·전화비	820,853
		사무기기	409,000
		복사비	359,450
		행사비	381,892
		기타	209,680
<b>수입총액:</b>	<b>9,322,540원</b>	<b>지출총액:</b>	<b>7,899,255원</b>
<b>최종결산:</b>	<b>+1,568원</b>		

<3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이달 재정보고중 후원금이 3백만원이나 넘은 것은 독일 양심수후원회와 대만 인권협회에서 보내준 후원금과 들빛회에서 전달한 후원금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세 단체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IMF 시대를 맞아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상근자들의 활동비, 사업비 등으로 매우 긴요하게 쓰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성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